

Issue Comment

2025. 10. 13

농심 004370

탐방 Comment

음식료/유통

Analyst 김정욱

02. 6454-4874

6414@meritz.co.kr

RA 황홍진

02. 6454-4874

hongjin.hwang@meritz.co.kr

3Q25 실적은 양호한 국내 실적과 부진한 해외 실적이 혼재되며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433억원 부합 예상. 국내는 7~8월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9월 영업일수(3일) 증가와 추석 전 수요로 견조한 매출 달성. 더불어 스낵 신제품 효과와 비용 절감 기조로 수익성은 전분기 대비 개선 전망. 반면, 수출은 유럽법인 설립 및 거래선 직거래 전환 등 재정비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물량 감소가 발생. 미국 법인도 가격 인상 영향으로 실적 회복세는 4분기 본격화 전망

국내

별도 매출 기준 전년 대비 +1~3% 수준의 성장 가이드라인 달성이 가능할 전망. 7~8월 주요 사업군 판매가 둔화됐으나, 9월 영업일수 증가(전년 대비 +3일)와 추석 전 수요 확대에 매출 성장. 라면은 여름 비수기와 소비쿠폰 효과 등으로 일시적인 수요 감소가 있었으나, 9월 반등으로 하락 폭 완화. 전반적인 총수요 감소 추세에도, 가격 인상 효과와 비용 효율화로 수익성 방어. 스낵은 '메론킥', '누룽지팝' 등 신제품 판매 호조로 성장 견인, 프로모션 경쟁이 완화된 가운데 판촉비 절감을 지속해 수익성 개선. 원재료비는 곡물가 안정화 영향으로 상반기 대비 부담 완화. 복리후생비는 전년 수준으로 이익 변동 요인은 제한적

해외

유럽법인 설립 이후 거래선 직거래 전환 및 통폐합 관리 등 재정비 작업 추진에 따른 일시적인 물량 감소 발생. 4분기 거래선 정비 마무리되며 정상화 예상. 미국은 7월 전 채널 평균 10% 초반대 가격 인상 이후 가수요 해소로 7~8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9월 회복세를 보이며 하락폭 축소. 가격 인상 효과는 4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전망. 중국은 전년 기저와 온라인 채널 회복으로 성장, 일본·호주·베트남도 성장세 지속

미국 법인은 글로벌 마케팅비 지출이 이어지면서 이익 기여가 제한적이며, 하반기 '케데헌'과의 협업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이 확대될 전망. 4분기부터 미국 중심 글로벌 캠페인 본격화 예정, 브랜드 인지도 확산 및 신규 소비층 유입 효과 기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